

# 미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향

- ▶ 미국에서 최근 제정된 통합세출법(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, 2021)에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됨
  - 일명 ‘코로나19 구호법(COVID-19 relief bill)’을 기반으로 한 통합세출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주목
  -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을 중범죄로 간주하고,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액 청구 사건을 전담할 행정법원인 저작권 청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

## 주요 변경사항



###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

#### 개요

- ▶ 불법 스트리밍을 “공연권”에 대한 위반으로서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의의

- ▶ 디지털 배포 및 복제의 개념과 공연의 개념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허점을 수정
- ▶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범죄로 규정

#### 상세 내용

- ▶ 적법한 권한 없이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에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
- ▶ 그동안 불법 스트리밍의 경우 경범죄(misdemeanors)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었으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특히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의 형량을 적용

### 저작권자의 동의 확보 및 규제준수를 위한 노력 촉구



### 저작권 침해 구제 간소화

- ▶ ‘저작권 청구위원회(Copyright Claims Board, CCB)’를 설치

- ▶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청구 과정의 편의성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

#### 개요

#### 의의

#### 상세 내용

- ▶ 저작권 청구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총 손해배상액 3만 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 및 그에 대한 반소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
- ▶ 위원회에서의 분쟁 절차 개시를 위해 당사자가 납부하는 심판 비용(filing fee)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설정
- ▶ 최종 결정 및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진행된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정보 자유법(Freedom of Information Act)상의 공개 대상 요청에서 면제